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사 천변 2길 6번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음 11월 14일) 제3890호

대표전화(063)288-9700 www.jjmaeil.com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말의 귀 닮은 마이산 위로 솟은 '해'



진안 마이산 위로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을 맞이하는 해가 떠올랐다. 마이산은 687.4m의 임마이봉과 681.1m의 수마이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안내서인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소개돼 만점인 별 세개를 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2026년 새해, 전복이 달라진다

경제·농업·문화·복지 등 도민 체감 7대 분야 시책 개편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소상공 희망채움통장 발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K-Art 청년창작자 지원 등 124건
전북자치도, 전복형 모델로 체감하는 실생활 밀착형 시책 확산

전북자치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 및 제도를 대거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들은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설계돼 전복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제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원의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발급도 지원한다.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며,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도와준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순창과 장수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고가의 수산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하고 지역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군산과 부안 지역의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부터 출하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해 어업인의 장비 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도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간 900만원을 창작활동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인당 연 15만원(기존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의 경우 전복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제도가 신설된다. 만 18세에서 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지급을 통해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한다. 환경·산림 분야는 전기자동차 전환 지원금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설·교통의 경우 신혼부부 및 청년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2년 동안 지원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한정해 지원했다.

행정과 도민생활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같은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저런 전북특별자치도 기획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들"이라며 "전복은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로서, 일상의 변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월 5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 신년호 매일 INDEX

- 12면 부안군, 바람연금 만들어 연금도시 전환 예고
- 16면 <신년 인터뷰> 김관영 도지사 "전복의 미래, 도민과 함께"

▶▶ 전복의 미래 '금융특화도시'

균형 성장 거점도시 발돋움 할 때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기관 안착... 아직 제3금융지 지정 요원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 힘 합쳐야... AI·혁신도시 접목방안도 연구
'피지컬AI 핵심 거점단지' 전북혁신도시, 금융·AI 접목 새로운 도시로

전북혁신도시가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3 금융지 지정 및 금융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금융특화도시 조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협 등 금융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AI와 연계된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면서 국내 균형 성장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때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안착하고 있지만, 아직 제3 금융지 지정은

요원하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를 미래 금융특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AI를 전북혁신도시와 접목시키는 방안 등도 연구돼야 한다. 시가 농업 전반에 걸쳐 그리는 농생명산업 큰 그림과 국내 금융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미래 금융특화도시 육성과 AI 등이 접목된 금융산업 생태계 안착 시도 등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전략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전국을 만들기 위해 5광역권, 3특자도 등 5극3특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미래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AI가 그리는 금융산업 생태계 흐름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지

난 10년간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전북은 혁신도시의 성공 안착을 통해 스스로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자부심을 깨달았다.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피지컬AI의 핵심 거점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산업과 금융이 어우러진 국제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세월 동안 농업지원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성장했다. 현재는 200곳이 넘는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과 AI 등이 접목된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켜야 한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첨단 금융산업 복합단지도 우뚝 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복규 논설위원